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전상인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 리나라의 북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자)의 참여는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변적이기도 제한적이다. 북한 혹은 통일 연구는 오랫동안 관변 혹은 제도권 영역의 전유물이었고, 연구의 주역들은 (국제)정치학자 또는 경제학자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는 아직까지도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북한·통일 연구에 종사하는 사회학자의 숫자는 여전히 극소수이며, 각종 유관 학술 세미나장에서 오늘도 그들을 末席에 앉힌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북한의 실상 가운데 현재 가장 취약한 분야가 북한 사회이고, 또한 북한 이후 독일이 경험하고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사회 통합의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1992년 이후 一群의 사회학자들이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1995년도에는 사회학자를 주축으로 하는 '북한사회연구회'가 발족함으로써 사회학의 북한 진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

중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서재진 박사이다.

서박사에 의하면 북한의 사회는 하나가 아닌 둘이다. 전체주의, 국가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획일주의 사회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북한이 그 첫째라면, 그 둘째는 '2차 사회(second society)'로서 그가 '또 하나의 북한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2차 사회란 원래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그것은 기존의 공식적·제도적 영역 밖에 존재하면서 국가로부터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자율을 추구하는 하나의 지하 사회이다. 2차 사회는 시민 사회(civil society)와 다르다. 시민 사회는 사적 자율화와 탈국가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공식·제도적으로 양성화되어 있는 상태임에 비하여, 2차 사회는 시민 사회의 맹아 혹은 前兆 단계인 것이다.

서재진 박사는 2차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사회의 '이중성'을 강조한다. 먼저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사회는 획일적

인 통제 사회의 이면에서 급속한 사회 구조적 분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분업의 확대, 도시화의 진전,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세대 교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계급 구조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북한의 공식적인 계급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인텔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중간 계급이 독자적인 사회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 구조의 이중성은 필연적으로 사회 의식의 이중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서박사의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외부 정보의 유입, 경제난의 심화, 그리고 소위 '복잡 균중'의 양산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인생은 臣民型과 개인주의로, 직업관은 노동계급영도론과 정신 노동직 선호로, 사회 생활에 있어서 집단주의 원칙과 사적 자율화로, 그리고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와 일상 생활의 저항으로 서로 양분되고 대립되어 있다. 결국, 북한 사회에는 지금 현재 구조와 의식의 양 측면에서 2차 사회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2차 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의 사회학적 함의는 그것이 붕괴하기 이전의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정도에서는 상당히 미약하지만, 변화의 방향면에서는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서박사가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향후

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이러한 2차 사회의 성장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북한 지도부의 의사와 무관한 시대의 대세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체제로의 재편입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운명 역시 구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서박사의 논리적 총착점이 된다.

내용적으로 보면 서재진 박사는 '또 하나의 북한 사회'를 드러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절한 이론 및 개념의 사용과 논증의 치밀성은 북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자 특유의 기여와 공헌으로 높게 평가받아 어색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 의식과 결론은 비판과 논쟁을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는 북한에서 2차 사회가 나타나는 까닭이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인간관과 인간 본질간의 괴리라고 주장했다. 곧, 인간의 본질은 개인주의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을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현존 사회주의의 실패를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에 의하여 인간이 그동안 개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결과로 보인다.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 자체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여서 특히,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2차 사회의 형성이 북한에서 과연 새로운 현상인가 하는 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민 사회 대신 2차 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사적 영역의 추구나 일상 생활의 저항, 육체 노동이 아닌 정신 노동의 선호 현상이 유독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붕괴 과정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서박사의 경우, 북한에 2차 사회가 대두하는 증거를 주로 최근 북한의 소설 분석이나 귀순자 면접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북한의 분업 정책이 198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계몽주의로부터 사실주의의 강조로 전환했다는 사실과 함께 귀순자들의 '정치적' 越南 동기를 고려한다면, 서박사가 말하는 그 정도의 2차 사회는 최근에 '알려진 것' 일 뿐, 이미 과거에도 북한에서 존재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서박사가 강조하는 대로 북한에서 2차 사회의 존재가 지금 현재 '미약할 뿐' 이라면 말이다. 1차 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만 본다면 2차 사회는 남한에도 있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사회간의 관계이다. 서론 부분에서 서박사도 적절히 유념하고 있다시피, 제2사회는 제1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안전 밸브

이며, 제1사회의 역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가중되는 경제난, 최고 지도자의 교체, 그리고 세계 체제로부터의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나름대로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서박사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의 사회'가 공식적·제도적 사회와 공존하고 병행하는 형태로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성공적인 까닭은, 그리고 실패한 현존 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사회주의 실현으로 기대되는 까닭은(역시 서박사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구소련이나 동구에서와는 달리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제1, 2 사회를 적절히 통합하고 융합하는 특유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 다시 말해, 서양의 현존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론에 집착한 결과 실패로 끝났다면, 동양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근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비사회주의적 방식을 의식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닐지. 북한의 2차 사회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統**

옥고를 기다립니다

1. 본지는 북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학술 논문이나 시사성있는 글로서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2. 보내신 글은 본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본 연구원의 동의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
4.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 의견도 실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통일경제」에 실린 글들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관해 제언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원고지 양식으로 저희 「통일경제」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 소정의 고료와 월간 「통일경제」 1부를 증정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 110-2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센터」

TEL : 746~8041, 8069

FAX : 746~8050

원고 집필 기준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논단 : 70매 내외
 - 특별기획 : 40매 내외
 - 초점 : 20매 이하
 - 독자의견 : 10매 이하
-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月刊 「統一經濟」 회원 가입 안내

- ▶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746~6787(회원제 담당자)

FAX : 746~6790

- ▶ 연간 회비는 60,000원입니다

외환은행 061-13-40879-9

예금주 : 現代經濟社會研究院